

# 자이툰 주둔지 아르빌서 자폭테러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의 수도인 아르빌에서 9일 오전 8시경(현지시간) 트럭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다.

한국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곳이기도 한 아르빌은 이라크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는 곳으로 이런 대형 폭탄 테러는 극히 드문 일이다.



9일 오전 트럭을 이용한 폭탄테러가 발생, 최소 19명이 사망한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의 수도인 아르빌에서 이라크 경찰이 사상자들을 옮기고 있다. /AP=연합뉴스

목격자에 따르면 테러범은 주방 청소제품을 실은 것처럼 위장한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아르빌 시내에 진입, 자이툰부대 주둔지에서 6~7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알려진 쿠르드족 자치정부 내무부 청사 부근에서 트럭을 폭발했다. 폭발로 창문이 깨지고 파편이 100m 밖까지 날아갔다.

자이툰 오프만 쿠르드족 보건장관은 이날 폭탄 테러로 19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부상자 중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 자이툰부대 장병이나 한국 교민의 피해는 없다고 합동 참모본부는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한 결과 장병이나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이툰부대는 부대방호 태세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르빌 지역에는 연락사무소 역할을 맡고 있는 자이툰부대 지원업체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관계자

9일 트럭 이용 차량 폭탄테러 발생, 12명 사망, 40여명 부상. 이라크 아르빌 자폭테러. /연합뉴스그라픽

## 19명 사망·80여명 부상...한국군·교민 피해 없어 자이툰부대 테러징후단계, 긴장→위협으로 높아

명 정도가 체류 중이다.

아르빌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대형 폭탄테러는 2년 전인 2005년 5월 쿠르드민주당(KDP) 청사를 겨냥해 수니파 무장단체가 저지른 테러로 당시 60여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 자이툰부대는 테러징후 평가단계를 '긴장'(amber)에서 '위협'(red)으로 한 등급 높였으며 이날 예정된 외부 민사활동 계획 2건을 취소했다.

한편 중동 순방길에 오른 터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로 이라크를 선택, 수도 바그다드를 깜짝 방문했다.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병력 증강만으로 이라크 종파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이라크 각 종파에 화해를 촉구할 방침이다.

# BDA 문제 이번주가 최대 고비

美 재무부, 北 요청 수용 여부 오늘 결정할 듯  
미 은행 중계 허용시 최종 송금지 러시아 유력

북한이 지난주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송금에 미국 은행을 중계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 재무부가 이르면 10일쯤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가 BDA 문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BDA 송금 문제에 정통한 미 관리들은 8일 북한이 지난주 중반쯤 이 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미국 은행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P 통신이 보도했다.

한 미국 관리는 "북한이 의지한 것이라면 BDA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었지만 북한으로선 제3의 은행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해야 국제금융시스템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굳이 미 은행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그러나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 블랙리스트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로선 BDA 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 은행이 이를 수용한다면 이 자금은 제3국 은행으로 송금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러시아가 될 공간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13 합의 이후 BDA 내 52개 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는 절차와 최종 송금이 이뤄질 3국 은행(러시아와 이탈리아) 물색은 거의 끝났지만 중계은행을 찾지 못했고, 결국 북한은 미측에 미국 은행을 중계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동해' 명칭 결판 2년 뒤로

한·일 모두 과반수 부담, 제안서 안 내 표결 무산

'동해'(East SEA)나, '일본해'(Sea of Japan)냐의 결정이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7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가 표결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고 우리 대표단 관계자들이 8일(현지시간) 내다봤다.

IHO는 9일 세계의 바다 이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서인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에서 동해 명칭을 어떻게 표기할 지 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회 개막 전 동해·일본해 표기와 관련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표결 가능성이 낮아진데다 회의 중간 일본이 의제를 긴급 상정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대표단 관계자들은 말했다.

동해 문제의 표결 연기는 앞서 2002년 동해 부분을 아예 빈칸으로 남겨둔 채 가관을 냈던 S23 4판의 최종 확정판 발간이 또다시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르코지 당선에 佛보다 더 신 난 미국

美-佛 관계 개선 기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방미 환영식이 열린 지난 7일 백악관. 백악관 뜰을 가득메운 미국인들의 화제는 영국이 아니라 온통 프랑스였다.

"미국은 우리의 우정을 믿어도 좋다"는 니콜라 사르코지가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됐다는 기쁨과 앞으로 미국과 프랑스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 지를 점치는 기대들이 넘쳐났다.

이날 백악관 환영식장에 참석한 미국인들은 "200여년전 식민지 미국인들을 도와 영국 통치자들을 몰아냈던 프랑스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

# 사르코지 '초호화판 요트 휴가' 입방아

사회당 "국민 모욕" 비판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 니콜라 사르코지가 당선 직후 지중해 섬 몰타로 날아가 요트에서 지내는 것을 두고, 호화 휴양을 즐기며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르코지와 부인 세실리아, 아들 루이는 언론 재벌인 뱅상 블로레 소유의 전용기를 타고 몰타로 이동해, 역시 블로레 소유의 요트에서 지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트는 일주일 간 빌리는데 20만 유로가 드는 것이라고 LCI TV가 보도했다. 사르코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 재벌들과 유착했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 美 대선주자 언론대응 10계명

- ▲절대 거짓말 하지 말고 절대 은폐해서 안되는 것은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해 나기 때문이다
- ▲미국의 UPI통신과 NBC 방송 기자 출신으로,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론 네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유권자와 소통을 잘 하는 비결 10가지를 설명한 가운데 첫번째에 올린 원칙이다. 다음은 네슨의 언론 대응 10계명.
- ▲절대 거짓말 말고 은폐 말라=기본원칙은 '은폐는 늘 본래의 실수보다 더 큰 탈락을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 ▲인터넷에 주목하라=즉시성, 상호성, 멀티미디어성이라는 인터넷의 강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 ▲기자를 교육시켜라=특히 복잡한 사안일 때는 뉴스가 되기 전부터 미리 교육용 배경설명을 해두라.
-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는 없다=기자들이 어떻게 약속하던 '오프 더 레코드'는 없다.
- ▲'노 코멘트'라는 말은 절대 말라=가다듬거나 당황스러운 질문이더라도 이 말은 하지 말라. 오늘날 '노 코멘트'는 유행 자백과 같은 것이다.
- 네슨은 이밖에 ▲시각 효과를 활용하라 ▲질문을 면밀하게 들어라 ▲언론전력을 사전에 준비하라 ▲방어적 대신 공격적 태도를 취하라 ▲나쁜 뉴스는 내가 먼저 말한다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 누드 앵커 공개 오디션



홀리 이글린턴(31)이 8일 뉴욕에서 네이키드 뉴스 노스 아메리카의 신인 탤런트 오디션중 알몸을 선보이고 있다. '네이키드 뉴스'는 볼거리를 넘겨 앵커들에 의해 뉴스, 연예 등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이나 TV,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출신의 이글린턴은 결국 앵커로 뽑혔다. /AP=연합뉴스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 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리어매니저 0명 모집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호남지역총괄 (株)행복출발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바즐닷컴 >go 을 치세요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http://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매대학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 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 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 0505-313-1515

##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 동아경찰영어

필수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인만큼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연은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원차 이전 확정!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2, 222-6253 [www.donga.tv](http://www.donga.tv)

##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회화막강 강사진! 열강! 역량! TESOL박사 최갑원장 토익만점 11회 조성훈 교수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원차 이전 확정!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2, 222-6253 [www.donga.tv](http://www.donga.tv)

## 동아외국어학원